

목포시 올해 장애인 맞춤형 복지 집중

일자리·연금·방문간호 등

316억 투입 삶의 질 향상

목포시가 올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펼친다.

22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해 펼칠 주요 장애인 복지시책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18억)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74억) ▲중증 장애인 방문간호, 활동지원 (40억)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88억) ▲장애아동 양육부담 지원(7억) 등의 사업에 3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목포시는 먼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자립기반 유도를 위해 총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231명에게 일자리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는 크게 일반형, 복지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파견 등 3가지로 나뉜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이달 초 각 주민센터를 통해 복지 일자리 사업 참여자 169명을 선별했다.

이들은 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보조, 환경정리, 급식보조, 장애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업무보조 등을 펼치며 연말까지 주 3회 1일 4시간(월 56시간)씩 근무하게 된다.

목포시는 또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73억원을 투입해 5840명에게 장애인 연금 및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2370명)은 월 2만원~28만4000원이 지급되며, 장애 아동수당(3470명)은 월 2만원~20만원이 연령 소득별로 차등 지원된다.

특히 이동 불편을 겪는 중증 장애인 530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와 활동 지원을 위해서도 4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생재활원·광명원 등 4개소의 장애인 시설에 85억원을 지원해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시는 이어 장애 아동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60명에게 7억원을 지원하



박홍률 목포시장장이 최근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장애인들을 위로·격려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는 사업도 펼친다.

김문옥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장은 “올해 총 사업비 316억원을 투입해 장애 유형에 맞는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등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관내 등록 장애인은 총 1만 3818명으로 전체 인구의 5.81%를 차지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가톨릭성지화 주변 등 도시계획도로 연내 15곳 건설

목포시가 안전하고 원활한 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주요 도로 개설에 박차를 가한다.

목포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3000억원에 달하는 부채 탕감을 위해 그동안 신규 도로 개설 등을 가급적 지연해 왔으나 지난해 말까지 7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줄여 올해부터 민원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 한해 사업비 19억원을 들여 15개소에 총 연장 3km의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한다.

올해 신규로 건설되는 도로는 가톨릭 성지화 주변 도로(길이 480m/ 3억원)을 비롯해 목포의료원~국도1호선 도로(길이 60

m/ 7000만원), 용당동 단골마트~목포교 옆 도로(길이 160m/ 1억원), 유달 가구백화점 도로(길이 185m/ 1억원), 동초등학교 옆 도로(길이 295m/ 2억 2000만원), 대성사당으로~석현초등학교 간 도로(길이 190m/ 4억2000만원) 등 모두 15곳이다.

용당2동 주민센터 옆 도로(길이 90m)와 성자마을 입구 도로(길이 150m) 등 2개소는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다. 목포시는 또 올해 주민참여 예산 3억3000만원을 투입해 4곳의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를 신규 개설하거나 확장에 나선다.

신규 개설 도로는 보영수퍼 옆 도로(길이 35m/ 1억원)와 일신아파트~중앙하이츠간 도로(길이 300m/ 8000만원) 등 2곳이며 청호공원~칠성암 간 마을안길 도



목포시가 최근 건설한 산정동 초조교회 앞 도로.

로(길이 100m/ 1억원)와 옥암 푸르지오 아파트 건너편 도로(길이 40m/ 5000만원) 등 2곳은 확장한다.

김찬익 목포시 도시건설국장은 “안전하

고 쾌적한 도로 확충 및 보행환경을 조성해 시민중심 위주의 도로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경기 활성화 위해 재정 조기집행 박차

목포시가 재정 조기 집행에 부서별 역량을 총동원한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조선 경기 불황으로 연초 지역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한 선제 대응과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이인곤 목포부시장은 22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목포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한 트리거(방아쇠)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로서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현장에서의 예산집행이 중요하므로 각 부서에서 개별사업 하나하나의 집행에 최선을 다해 준다면 경기회복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이어 “매월 지방재정 집행 실적 보고회를 열어 주기적인 실적 점검과 집행독려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시는 지난해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재정집행에 전행전력을 집중한 결과, 전남 도내 22개 시군에서 최상의 성적을 거뒀다.

목포시는 지난해 재정집행 예산액 7804억원 중 6781억원(12월말 기준, 행자부 통계)을 집행해 집행을 86.89%를 달성하고,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목포시가 예산편성 시 주민 현안 사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 불합한 예산만을 편성지출한 결과로, 예산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 해 효율적

으로 시 재정을 꾸렸다든 반증이라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앞서 목포시는 행자부에서 실시한 재정집행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1억 2500만원의 포상금과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 부시장은 “올해도 각 부서별 집행을 과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해 이러한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는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전남인적자원개발위 현장교육 강화

목포고용청·전남도 등과 지원 협약 체결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최근 전남도, 목포상공회의소, (재)전남도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와 함께 ‘2017년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지원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을 통해 전남 인자위는 고용노동부 7억4000만원과 전남도3억 1000만원 등 총 사업비 10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남인자위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지역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역 노·사·민·정이 협업체 2013년 출범한 기관으로, 지역 인력양성의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남 인자위는 지난해 1500개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력·교육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채용훈련센터 3개소를 통해 채용예정자 571명·재직자 2,025명의 훈련을 실시했으며 일학습병행제 70개 기업, 학습근로자 358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훈련 수요조사를 확대 시행하고, 훈련기관을 15개소로 확대해 2500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내실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섬 주민 차량·농기계도 운임 50% 지원

목포시가 전국 최초로 관내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당초 여객(대인) 운임만 50%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차량과 농기계도 운임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22일 “현재 차량의 경우 운임의 20%만을 지원하고 농기계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차량과 농기계도 정률 50% 지원에 나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지자체 가운데 차량 운임 지원 기준 20%를 초과해 지원하는 지자체는 없으며 차량 이외에 농기계류 운임을 지원하는 지자체 역시 단 한곳도 없다.

이는 목포시의회 정영수 의원의 발의로 지난해 12월 ‘목포시 도서지역 주

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정규 운임이 1만6400원(20% 지원)에서 1만2500원으로 줄어든다. 1톤 화물차는 1만 8800원에서 1만1750원으로, 농기계는 경운기의 경우 1만6000원에서 8000원으로, 트랙터는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목포에서 여객선을 이용한 차량 도선은 2014년 1105대, 2015년 1939대, 2016년 2100대(11월말 기준)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현재 목포시 관내 도서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총 175대이며, 농기계는 경운기 65대·콤바인 17대·트랙터 19대 등 총 111대에 달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시의료원장 최종후보에 최태욱 원장 선정

목포시는 “오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목포시의료원 원장에 대한 공개모집을 통해 현 최태욱 원장(76·사진)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목포시는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공모를 실시했으며, 목포시장의 임명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최 원장은 지난 2008년 2월 제9대 시의료원 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2011년 10대, 2014년 11대 원장을 거쳐 이번엔 원장으로 임명되면 내리 4번을 연임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된다.

특히 최 원장은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의료원의 경영혁신을 통해 지난



2015년 의료원 개원 이후 처음으로 7억원의 흑자를 달성하는 등 전국 지방의료원 중 가장 모범적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발돋움시킨 성과를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원장은 “시 의료원이 ‘보통자 없는 안심병원’ 등 차별화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통해 개원 이래 최초로 흑자를 달성해 타 지방의료원의 롤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현재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분발해 서남권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백범대입구 500m
대산프리모가발